

### 191km '평화누리길' 세계 관광 명소로 만든다

#### 경기도, 리기산관리사무소 협약 온라인·표식설치 공동 홍보나서

경기도 '평화누리길'이 세계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.

평화누리길은 비무장지대(DMZ) 접경 지역인 김포·고양·파주·연천 등 4개 지역을 잇는 총연장 191km의 길로 12개 코스로 구성된 경기도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다.

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염원을 간직한 곳이 많고, 임진강과 군 순찰로 등 DMZ 접경 지역 특유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최근 도보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.

경기도는 이달 15일(현지시간) 스위스 루체른 주 리기 스타펠(Rigi Starffel)

역에서 '평화누리길-스위스 리기산 공동 홍보협약'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경기도와 리기산 관리사무소는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산책로에 우호 관계를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웹사이트와 전단을 활용해 콘텐츠를 홍보하게 된다.

업무추진 우수사례 및 관리운영 기법 공유, 공동 워크숍 개최, 지역 정보 상호 제공, 지역 행사 공동 주관 및 참여 등도 두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.

이번 업무 협약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리기산을 방문해 두 지역 간 교류 협력을 제안하고, 이후 올해 3월 리기산의 로저 요스(Roger Joss) 이사가 평화누리길을 방문해 세부사항을 검토하면서 성사됐다.

도는 이번 협약이 두 지역 간 교류협력 활성화로 이어져 '평화누리길의 세계

화'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.

리기산은 '산들의 여왕'이라는 별칭을 가진 스위스 중부 루체른 주에 있는 1798m 높이의 산이다.

하이킹이나 스키 등 산악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다.

최근에는 국외 방문객 증대를 위해 중국 어메이산(아미산)과 동반관계를 맺는 등 한국·중국·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.

도 관계자는 "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관광대국이라는 점에서 평화누리길과 교류 협력할 부분이 많다"며 "평화누리길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 파주=최종복 기자 bok7000@

# 세계적으로 이름 알리는 경기도 '평화누리길'

## » 스위스 리기산 관리소와 공동 홍보협약 체결

경기도 평화누리길과 스위스 리기산(Mt. Rigi)이 지난 15일(현지시간) 스위스 루체른주 리기스타펠(Rigi Starfelle)역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'평화누리길-리기산 공동 홍보협약'을 체결했다.

협약은 임순택 경기도 DMZ정책담당관과 스테판(Stefan) 리기산 관리소 대표가 참석해 추진했다.

'산들의 여왕'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리기산은 스위스 중부 루체른 주에 위치한 1천798m 높이의 산으로, 하이킹이나 스키 등 산악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.

협약에 따라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트레킹 코스에 우호 관계를 알릴 수 있는 표식설치, 웹사이트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, 리플릿을 통한 홍보 등을 상호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.

또 양 기관 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및 관리운영 노하우 공유, 공동 워크숍 개최, 지역 정보 상호 제공, 지역 행사 공동 주관 및 참여 등에



노하우 공유·워크숍·정보제공 등...

타 기관과 유사 협약 안팎기로 명시

하이킹 관광대국과 교류협력 기대감

도 함께 힘쓰기로 합의했다. 특히 양 국가 내 다른 기관과 이와 유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협약서에 명시해 독점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졌다.

이번 업무협약은 도가 지난해 11월 리기산을 방문해 양측 간 교류협력을 제안한 뒤 올해 3월 리기산 관계자들이 평화누리길을 방문해 세부사항을 점검한 결과로 이뤄졌다.



경기도와 스위스 리기산 관리소는 지난 15일(현지시간)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 홍보협약을 체결했다. /경기도 제공

평화누리길은 비무장지대(DMZ) 접경 지역인 김포, 고양, 파주, 연천 등 4개 지역을 잇는 총 연장 191km, 12개 코스로 구성된 경기도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다.

도 관계자는 "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

하이킹 관광대국이라는 점에서 평화누리길과 교류 협력할 부분이 많다"며 "앞으로도 평화누리길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차근차근히 다져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/김환기기자 khk@kyeongin.com